서양 선교사들과 1907년 대부흥운동

서정민 *

Ⅰ. 1907년 대부흥운동의 전체적 개요 이해
Ⅱ. 대부흥운동과 관련된 서양선교사들
Ⅲ. 결론 -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과 선교사 관계론

Ⅰ. 1907년 대부흥운동의 전체적 개요 이해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宣敎史)의 경이이며, 기독교회사 '제3의 시대'를 연 교회임을 국내외 누구나 인정하는 경향이다. 최근에 이르러 한국교회의 위기를 논하기도 하고, 새로운 선교와 신학의 지평이 필요하다는 점검론도 대두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 상황 안에서 가장 역동적인 교회현장을 지닌 교회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전개와 진로의 연원은 역시 교회사의 역사적 원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새롭게 계승하며, 재해석하여 실천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와 있음 또한 사실이다. 필자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역사적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을 1907년의 대부흥운동, 곧 그 시기 전후의 신앙사건으로 이해한다.

* 연세대학교, 교회사

1. 초기 한국기독교 수용환경과 신앙형태

한국은 비교적 후발 기독교 수용국가이다. 극동(極東)지역의 경우로만 보아도 가톨릭 선교에 있어서도 가장 나중의 신앙 수용국가였고, 프로테스탄티즘 역시 선교사의 도래로만 보아도 가장 늦은 경우였다. '쇄국'과 '금교 정책'이라는 국내 상황이 크게 작용하였고, 더불어 중국과 일본 중심의 서구국가의 극동진출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히 한국에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가 선교를 시도하고, 비로소 수용되는 시점에서는 동 시기 여타 기독교 수용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외형적 구조를 특징으로 지니게 되었다. 즉 다른 국가나 선교지역들이 기독교 선교국가들에 의한 국권위협이나 식민지배라는 구조와 더불어 그 가해자적 당해 국가들로부터 기독교를 전수 받았다면, 한국의 경우는 '반(反)기독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국권위협과 침탈, 그리고 별도로 서구 기독교 국가에 의한 선교수용 이라는 이원구조가 성립되었다. 여기에 더불어 한국기독교 수용자들에게는 민족의 위기로부터 민족을 구하기 위한 방도, 민족구성원의 자강과 의식개혁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독교를 기대하는 정황이 자연스럽게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충군애국의 기독교', 혹은 '한국민족기독교'의 형성이 가능하였다. 이는 엄밀히 '종교적 기독교'이기 이전에 '이데올로기적 기독교'였고, '신앙'이기 이전에 '사상'이요, '문명'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 초기기독교는 한국인의 '희망'과 '기대'로 부응되었고, 교육기관과 의료 활동, 사회적 개혁과 의식의 변혁을 통해 '기독교의 힘'을 창출하였다. 이는 일정 부분에서 바람직한 선교환경을 형성한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궁극'은 아니었고,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본질은 아니었음 또한 사실이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는 공고한 선교환경이라는 긍정적 특징을 지녔으면서도, 위험하였고, 영속적 기대감에서 현저한 결핍을 보이는 상황이었다. 초대 교인들의 다수는 신앙적 감동보다

는 사회적 기대, 민족 현실적 기대에 팽배되어 있었다. 거칠게 단언하면, '민족적 기복신앙', '사회적 기복신앙'에 몰입된 형태였다.

2. 신앙적 자각운동과 대부흥운동의 전개

초대 예수 공동체에서는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 중세교회에는 '종교개혁'과 '반동 종교개혁'(Counter Reformation)이, 그리고 이후로도 신앙적 상황이 경직되거나 선교 역동성이 상실되어 갈 때면 새로운 신앙현상이 출현하였다. '독일 경건주의 운동', '영국의 부흥운동'이 교회사의 고비마다 등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교회에도 수차례에 걸친 대 각성운동이 이어졌고, 근현대 선교시대에도 웨일즈나 인도의 부흥운동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세계교회들의 현상은 모두 신앙의 역동성, 지속적 선교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 새로운 신앙체계의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적 현현으로 전개된 특징을 지녔다.

1903년 원산에서는 한국의 장감선교사들의 사경회가 열렸다. 미남감리회와 캐나다장로회 한국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모임인데, 여기에서 회개사건과 성령체험 사건이 경험되었다.[1] **그 주인공은 캐나다 출신의 미남감리회 소속의료선교사인 하디였다. 그는 자신의 신앙 경직과 선교활동의 나태, 한국인에 대한 사랑 실천의 부족을 눈물로 고백하였다.**[2] **이는 큰 반향으로 집회의 모든 선교사와 한국인 신앙수용자들에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예루살렘'인 평양으로 확산되었다. 하디가 초청되고 평양주재 선교사들과 기독교지도자들에게 감동적 체험을 주었다. 골자는 '회개'이며, 진정한 '회심'이었다.**[3] 목적이 달리 있는 방편

1) 梁柱三 編纂,『朝鮮 南監理教會 三十年 紀念報』(京城: 朝鮮南監理教會傳道局, 1930), 61.
2) *Methodist Church South Report* for 1905, 39-44, 白樂濬,『韓國 改新教史 : 1832-1910』(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3), 381-382에서 재인용.
3) Hardie R. A., "Evangelistic Work on the East Coast", *The Korea Mission Field,*

이나 수단으로서의 기독교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생애가치의 궁극적 의의로서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체험이 평양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간 것이 1907년의 사건이었다. 한국인 대표적 지도자 길선주와 **장로교 선교사 블레어, 리 등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폐부를 갈랐다.** 이들은 마침내 전인적 변화와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결단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이기심을 버리고, 목적을 뒤로하고, 영적 음성에 몸과 마음을 다 맡기는 신앙적 결단으로 나타났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 함은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비롯된 부흥사경회의 경이적 사건과 그것을 필두로 전국을 휩쓸고, 저 중국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친 한국교회의 신앙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이 운동의 특징을 한 마다로 정의한다든가, 이 부흥운동의 신앙적 특성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관점과 양상에 따라 상당히 다른 시각과 현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운동의 신앙양태는 철저한 회개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이미 보았듯이 이 운동의 한 원형이 된 원산사경회의 확산이유가 하디의 고백으로 지칭되는 기존 선교사, 신앙인들의 죄책고백이었다는 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이 감동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고 이 공동체적 고백은 곧 바로 성령 감동의 체험으로 연결되어 용서와 화해, 고난을 견디는 내면의 힘으로 연결되어 나갔다는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 운동을 단순한 회심과 결신의 확산이나 교회의 양적 성장이 주가 되는 부흥 역사의 관점에서 살피는 것은 부족한 시야이다. 더구나 그 부흥 현상 자체도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기독교 신앙을 재흥하여, 새로운 감동, 새로운 경건으로 회복시킨 사건이라는 문자적 의미의 '부흥' 관점으로 본다는 것도 당시로서 '어린 교회'요, 초기 역사였던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적절한 이해는 아니다. 오

Vol.III, No.6, June 1907, 93-95.

히려 '기독교 신앙' 자체의 본질을 비로소 받아 드릴 수 있게 된 본격적 '기독교 신앙화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당시 한국 초기교회의 신앙양태의 측면에서 보면, 현상적으로는 충분히 '비 민족화'나 '비 정치화'로 진단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민족적 목표나 사회적 지표를 수행하는 공동체로서의 의의를 강하게 지녔던 상황에서 개인의 체험과 경건, 죄의 고백과 중생의 경험이 표현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인 것이다. 물론 일부 선교사나 신앙 지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사회적 목표에 몰입되어 있던 한국교회의 신앙양상을 염려하는 의견도 다수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신앙사건이 그대로 그들 일부 지도자들의 변화 의도대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 초기기독교인들의 영적 체험의 결과였고, 그러한 역사(役事)의 확산이었다.

3. 대부흥 사건 이후 한국교회의 진로

'이데올로기적 기독교'로도 평가할 수 있었던 한국 초기기독교가 1900년대 초반, 특히 1907년을 경과하면서 전적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기에 이르렀다. 첫째, 한국교회의 리더십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구국의 일념으로 기독교적 사상을 채택하고 그 공동체를 리드하던 기독교계 민족운동가 그룹이 교회 지도력의 선두에서 이탈하였다. 이들은 대개 평신도 지도자였고, 시대적 목표에 행동지표를 두는 경향이 강한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신진 개화파 중 친미 계열, 독립협회를 기반으로 했던 근대 사상가 그룹, 특별히 '상동파'로 지칭되는 기독교민족운동가 그룹,[4] YMCA를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의 청년 운동체가 그 저변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급진적 정치운동으로 한성감옥의 수감경험을 지닌 이들도

4) '상동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정민, 『이동휘와 기독교』(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65-71을 참조.

다수였고, 거기에서 개종하고 기독교 구국론을 입론한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1907년 전후의 신앙사건 이후 다수 교회의 지도력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표실현의 이상을 철회하였다. 이들을 대신하여 신앙적 지도자, 신학을 수학한 이들, 명실상부한 목회지도자들로 한국교회의 지도력이 교체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역적인 변수나 경향을 한 가지 더 부안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던 지도력이 평양과 서북을 중심으로 한 인맥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둘째, 한국의 주요 교파들이 자체의 교파조직과 교회 치리의 조직 체계를 정비해 나갔다. 이는 1907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 조직을 대표적 사건으로 하는 한국토착교회 조직을 의미하고, 한국교회 스스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과 목사안수를 시행하는 명실상부한 교회조직의 외형을 갖추는 단계를 의미한다. 셋째, 한국교회가 곧 바로 국내외 선교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행동에 돌입하는 일이며. 이와 더불어 대 부흥 사건의 전국 확산과 함께 중국교회를 대표적 지역으로 하는 해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점이다. 즉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미 1907년 조직과 더불어 당시로서는 해외선교로 분류되는 제주도에 선교사 이기풍을 파송하였고, 하와이 초창의 한국이민 선교는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대한 선교를 기획했으며, 일부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부흥운동의 모형을 중국에서 실천하였다. 당시로서는 초창기의, 수용된 지 20여년에 불과한 약한 교회로서의 한국교회가 수행한 이러한 선교실천의 모습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곧 한국교회 부흥사건이 세계교회사의 맥락에 항시 보고되던 신앙적 패러다임 전환 뒤에는 곧바로 선교의 열정과 그 실천으로 이어지던 극적 신앙사건 전통의 흐름 위에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의의이기도 하다.

이상의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은 단순히 시기가 되어 진행된 교회사적 변화라고만은 볼 수 없는 여러 증거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안팎 모든 면에 있어 교회의 실제적 제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한국교회가

경이로운 신앙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실질적 교회로서의 형태를 갖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는 마침내 교회가 '정교관계'(政教關係)에 있어서도 자체적 체제를 갖추어 대결이든, 협력이든 그 상대의 한 축으로서의 상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도를 구축했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초기 한국교회의 이데올로기적인 현상들을 염려하던 일부 선교사들이나, 반대로 한국교회를 구국운동의 구심체로 역할 할 것을 염원하던 민족 운동가들의 이해대로 한국교회가 '정교분리'의 특성을 확보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신앙운동의 큰 급류가 전국을 휩쓸 때 한국교회 기왕의 '정치화'를 염려하던 선교사나 보수적 신앙지도자들, 반대로 한국교회의 민족적, 정치적 역할을 바라던 민족운동 그룹은 이 현상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기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한국교회는 긍정이던, 부정이던 간에 정치와 민족의 문제에서 분리되고 개인과 내면으로 이행하였다는 것이 공통된 판단이었다.** 그러나 교회사는 그 이후의 한국교회 진로를 이미 잘 증언하고 있다. 민족운동 비밀결사인 '신민회'가 대 부흥 이후의 한국기독교 세력을 기반으로 조직되었고, 이를 일망타진하고자 한 일제는 '한국민족기독교'의 와해를 획책하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 일명 '105인사건'을 조작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보복과 참혹한 가해를 자행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3·1운동을 주도하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 진정한 민족교회, 민족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예언적 참여를 다하는 교회의 진로를 걸었다. 이는 결코 **'피안'과 '개인적 내면신앙'의 방향으로 '몰역사적 진로'를 선택한 교회가 아님을 드러내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1907년 신앙사건 이후의 일로 한국교회의 진로는 부흥운동의 과정에서의 일부 자료가 전하는 진술과는 향후의 전개가 다른 길을 갔다.

Ⅱ. 대부흥운동과 관련된 서양선교사들

앞서 개략적으로 살핀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과 주한 선교사들의 관계는 이 발제의 본론적인 관심이다. 즉 이 부흥운동의 단초와 전개, 그 결과의 수렴과정에서 선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혹은 선교사들이 이 부흥운동의 진행 추진과정에서 어떤 일정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의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측면은 존재하는가를 밝혀보는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 질문의 해답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이 운동의 발단에서부터 우선 선교사들의 관여와 게재는 확실한 바 그 관련성의 낮은 단계의 자료정리로부터 출발코자 한다.

1.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는 각 선교사들의 개별적 면면[5)]

1) 1903년 원산 사경회

화이트 M. C. White (女, 미국, 미남감리회)
1875. 5. 12. 미국 조지아주 Perry에서 출생
1973. 5. 18. 98세로 미국에서 소천
1893년 웨슬리안대학 졸업, 1901년 스캐릿신학교 졸업
남감리교 중국선교사로 파송
1903년 한국에 초청되어 함남 원산에서 일주일간 감리교 선교사들을 위한 사경회에서 기도와 성경공부 인도

5) 선교사 개별 신상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를 참고.

맥컬리 L. H. McCully (女, 캐나다, 캐나다 장로회)

1864. 4. 24.~1945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로 중국으로 파송

1900년 의화단 사건으로 한국으로 피신

함남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매일기도회를 성경연구회로 발전시켜 원산 부흥운동 이끔[6)]

한국 여전도회 초대회장에 선출되어 성경공부와 계몽교육

1903년 말부터 함흥에서 주간 성경공부반 개설하여 가르침

원산에 마르다윌손 여자신학원 설립

1934년 귀국

저다인 Joseph L. Gerdine (미국, 미남감리회)

1870. 7. 13.~1950. 3. 13. 미국 앨라배마주 픽켄스카운티 출생

조지아대학교, 메이콘 대학에서 법학전공, 남부 조지아연회에서 목사안수

1902년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원산에 부임[7)]

1903년 원산선교사 부흥운동의 중심인물

1906년 개성지방으로 전임하여 2년간 활동

1906년 목포에서 사경회 인도, 전라도 회개운동을 일으킴

1908년 서울로 이전, 105인 사건으로 탄압받은 한국기독교인 반호 자청, 석방을 도움

1937년 병고로 귀국

캐롤 A. Carroll (女, 미국, 미남감리회)

---

6) L. H. McCully, "Fruits of the Revival", *The Korea Mission Field*, Vol.III, No.6, June 1907, 83-84.

7) J. L. Gerdine, "After three years", *The Korea Mission Field*, Vol.II, No.6, April 1906, 118.

1899년 미남감리회 선교사로 내한
1903년 원산 성경공부 모임에 소속되어 부흥운동 경험
1910년 Charles T. Collyer와 결혼
원산 부흥운동 목격담을 기록 : "Report of the Boarding School and General Work in Wonsan",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3

노울즈 M. Knowles (女, 미국 남감리회)
1900년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함남 원산지방에서 활동
루씨건내금여학교(루씨여학교) 설립, 초대 교장으로 재직
1903년 원산 성경공부 모임 소속, 원산 부흥운동 목격 후 기록으로 남김
1906년 원산 상리교회에서 부인성경반 시작, 여성들을 위해 성경, 한글 교육하며 방렬방이라 함(원산 보혜여자관의 전신)
1906년 원산기독병원에서 활동하던 로스와 결혼
1917년 귀국 후 소천
원산 부흥운동 목격담을 기록 : "Miss Knowles' Report",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4

하운셸 J. Hounshell (女, 미국, 미남감리회)
1902년 미남감리회 선교사로 내한
1903년 원산 선교사 성경공부모임에 참여
원산 부흥운동 목격담을 기록 : "Report of Miss Hounshell",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3

하디 R. A. Hardie (男, 캐나다, 남감리회)
1865. 6. 11.~1949 캐나다 온타리오주 칼레도니아 출생
1890년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890년 토론토 대학 YMCA 선교회 선교사로 내한
1892년 함남 원산으로 선교지 이전, 진료소, 시약소 운영
1903년 8월 중국에서 온 화이트 선교사를 강사로 선교사의 기도와 성서사경회 개최, 원산 부흥운동 시작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강사로 연합사경회 개최
원산 부흥운동 목격담을 기록 : "R. A. Hardie's Report",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3

2) 원산 이후 확산되는 부흥운동

J. F. Franson 중국에서 활동하던 스칸디나비아 선교연맹 소속 스웨덴 목사로 1903년 경 원산을 방문하여 원산 감리교 선교사들과 사경회[8)]

럽 A. F. Robb (캐나다, 캐나다장로회)
1872~1935

8) J. F. Preston, A Notable Meeting, *The Missionary*, Jan., 1907.

1901년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원산에서 한국어 공부
1903-1907년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지도자
1904년 특별한 은혜 체험
1905년 원산 제직사경회에서 회개운동 이끔

Howard A. Johnston 1906년 뉴욕출신의 존스턴 박사가 서울과 평양에 와서 인도의 Kassia Hills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소식을 선교사들에게 전함

Mary R. Hillman (女, 미국, 미감리회)
1870. 4. 21.~1928. 2. 1. 미국 필라델피아 출생
1900년 미감리회 선교사로 내한
1900~1906 제물포선교부에서 여성 선교사업 종사
1904년 인천지역 여성선교 담당, 원산에서 옮겨온 인천지방 부흥회에서 전도부인들의 회심 목격
1904년 11월 10일부터 5주간에 걸쳐 전도부인들과 함께 황해도 지방으로 가서 부인 사경회를 개최, 이후 부평, 남양, 강화, 교동 등지를 돌며 계속 부인 사경회 개최[9)]
1907년 강화, 삼산, 교동, 연안, 해주까지 순회하며 복음전도, 여자사경회 조직, 인도. 매일학교 지도
1928년 서울에서 소천, 양화진에 안장

L. A. Miller (女, 미국, 미감리회)
1870년 미국에서 출생
1901년 미감리효 선교사로 내한

9) M. R. Hillman, "A Wonderful Week", *The Korea Mission Field*, Aug. 1906, 183.

1904년 인천지역 여성선교 담당, 원산에서 옮겨온 인천지방 부흥회에서 전도부인들의 회심 목격

1904년 11월 10일부터 5주간에 걸쳐 전도부인들과 함께 황해도 지방으로 가서 부인 사경회를 개최. 이후 부평, 남양, 강화, 교동 등지를 돌며 계속 부인 사경회 개최[10]

1907년 수원지방에서 부녀사업 및 교육사업, 삼일여학교 교장 취임

1924년 문맹퇴치를 위한 강습소, 최용신 파송

1931년 연회 입회, 집사목사 안수 받음

1938년 귀국

Mrs. Cable (여, 미국, 미감리회)

1904년 11월 10일부터 Hillman, Miller와 함께 5주간에 걸쳐 전도부인들과 함께 황해도 지방으로 가서 부인 사경회를 개최. 이후 부평, 남양, 강화, 교동 등지를 돌며 계속 부인 사경회 개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기여

3)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스왈론 William L. Swallen (미국, 북장로교)

1865~1954 미국에서 출생

1892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서울 선교부에 소속

1893년 관서지방 개척선교사로 임명, 평양지방 선교사업 개시 및 평양 주재 선교사로 위임

10) M. R. Hillman & L. A. Miller, "Report of Chemulpo Church, Day Schools and West Korea District", *Report of Annual Session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5, 26-27.

1894년 함남 원산선교부에 파송되어 순회전도, 교육활동
1899년 평양선교부로 이주, 숭실학당 관리책임자로 봉직
1901년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 초대회장에 피선
1903년 마펫, 베어드 등과 함께 평양신학교 발족
1907년 1월 평양 부흥운동을 목격, 기록으로 남김, 후에 부흥운동을 전파하러 광주로 떠남[11)]
1932년 평양선교부 은퇴
1939년 귀국

리 Graham Lee (미국, 북장로교)
1861~1916 미국 일리노이주 출생
시카고 매코믹 신학교졸업
1892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1893년 관서지방 개척성교사로 임명, 2월 평양방문 후 형평상 서울로 돌아와 연동교회 설립의 기초를 닦음
1895년 평양에서 개척선교 (한석진 조사 대동)
1900년 관서지방 연합사경회 인도
1901년 평양장로회신학교 교수
1906년 성탄절 때 선교사들 특별기도주간 참석
1907년 1월 6일 장대현교회 중심으로 대사경회 개최
1907년 1월 14일 평양 부흥운동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부흥회를 인도함[12)]
1912년 귀국

---

11) W. L. Swallen, "God's Work of Grace in Pyeng Yang Classes", *The Korea Mission Field*, Vol.III, No.5, May 1907, 78.
12) G.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The Korea Mission Field*,, Vol.3, No.3, March 1907. 37.

번하이젤 Charles F. Bernheisel (미국, 북장로교)[13]

1874~1958

1900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평양에서 선교활동

1903년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도덕학 강의

1905년 산정현교회 초대목사로 시무

1912년~ 평양숭실대학 교수

1930-31년 평양 외국인학교 교장으로 봉직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송환되어 귀국

Mrs. Bernheisel

1907년 1월, 평양 시내 여학교 회개운동에 참여

헌트 William B. Hunt (미국, 북장로교)

1869~1953. 12. 20

1897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평양선교부에서 어학공부

1898년 황해도 재령으로 파송

1907년 1월 평양 부흥운동을 목격 후 대구로 부흥운동을 전파하러 떠남

1939년 정년 은퇴후 귀국

블레어 William N. Blair (미국, 북장로교)

1901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평양선교부에 부임

1907-08 강계 대겨울성경학교로 부흥운동의 기조가 됨

1907년 1월 12일 토요일 부흥집회에서 설교

1907년 1월 16일 장대현교회 수요기도회 인도, 이후 평양 부흥이 전국으로 확산됨

13) C. F. Bernheisel, *The Apostolic Church as Represented in Korea*, 1908, 4.

1907년 1월 사경회에서 회개운동을 목격, 기록으로 남김[14]

191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회계로 선출

1937년 평양 부근 52개 집아교회 관할, 평양신학교 교수 취임

1942년 일제의 탄압으로 귀환

베어드 W. M. Baird (미국, 북장로교)

1862. 6. 16.~1931. 11. 29. 미국 인디애나주 찰스턴 출생

1888년 매코믹 신학교 졸업 1903년 하노버대학 철학박사, 1913년 신학박사

1891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부산에서 선교사업

1897년 평양지구 선교회로 이전, 사랑방학교 개설

1901년 숭실학당으로 개칭, 당장에 추임

1906년 합성숭실대학으로 발전

1931년 평양에서 소천

맥큔 G. S. McCune (미국, 북장로교)

1872~1941. 12. 1. 미국 미주리주 출생

1905년 9월 12일 북장로교 교육선교사로 내한, 평양선교부 소속되어 숭실학교 운영에 협조

1907년 평양신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부흥운동, 성령체험을 목격하고 기록함[15]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을 목격하고 이를 기사로 남김

---

14) W. N. Blair, *The Korea Pentecost and other experiences on the mission field*, New York :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30 ; *Gold in Korea*,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57,

15) G. S. McCune, "Opening Day at the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 Mission Field*, Vol,III, No,6, June 1907, 89 ; "The Holy Spirit in Pyeng Yang", *The Korea Mission Field*, Jan. 1907, 1.

1909년 선천선교회 전임, 신성중학교 교장 부임
1928년 평양숭실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
1936년 신사참배 거부, 귀국

벡커 Arthur L. Becker (미국, 미감리회)
1879~1978
1903년 미감리회 선교사로 내한, 평양지방에 부임
1907년 평양 숭실학당 교수로 전임
1907년 숭실학교에서 일어난 부흥회 상황을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김

스눅 Velma L. Snook (미국, 북장로교)
1866. 1. 29.~ 1960. 3. 20 미국 아이오와주 페어필드 출생
1900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평양선교부에 부임
1903년 숭의여학교 2대 교장 취임
1907년 스눅이 관리하는 여학교 학생들의 회개운동이 널리퍼짐
1936년 신사참배 거부로 교직권 박탈, 귀국
1943년 77세로 동료선교사 멕머트리와 펜실베니아에서 결혼

노블 William A. Noble (미국, 미감리교)
1866. 9. 13. ~ 1945. 1. 6. 미국 펜실베니아 스프링데일 출생
1892년 미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3년간 배재학당 교사
1894년 홀(W. J. Hall) 소천 후 그를 이어 15년동안 평양 선교
1907년 평양 부흥운동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김[16]

16) W. Noble & G. H. Jones, *The Religious Awakenning of Korea: An Acount of the Revival in Korea Churches in 1907*, N.Y.: Board of the Foreign Missions, MEC, 1908.

1908-11년 평양 및 서울지방 감리사로 한국 감리회 70% 관할
1933년 은퇴

존스 George Heber Jones (미국, 미감리교)
1867. 8. 14. ~ 1919. 5. 11. 미국 뉴욕주 모하크 출생
1887년 미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1892-93년 배재학당의 당장으로 2년간 교육사업 참여, 제물포지방 감리사
1892-98년 〈The Korea Repository〉 창간, 주필로 활동
1892년 〈찬미가〉 편찬
1900년 〈신학월보〉 창간
1897년 엡웟청년회 창설때 총무로 참여
1903년 YMCA 창립에도 참여
1902년 하와이 이민사업 후원
1907년 평양 부흥운동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김
1907-09 협성신학교장 역임

마거렛 베스트 Margaret Best (미국, 북장로교)
1867~1942. 9. 30.
미국 미주리주 파크대학 법학과 졸업
1897년 북장로교 선교사로내한, 평양선교부 부임
1898- 숭실학교 교사
1903년 숭의여학교 개교시 초대 교장으로 취임
1905년 숭의여학교 스눅에게 인수하고 전도사업에 몰두
1901년 황해도 선천 전도, 1906년 황해도 곡산지방 전도
1907-30 평양여자성경학교 초대교장으로 재직

1907년 1월 평양 부흥운동을 목격하고 미북장로회 선교부 브라운 총무에게 이에 대해 보고함[17]

1937년 은퇴하고 귀국

무어 Samuel F. Moore (미국, 북장로교)

1846~1906

1892년 선교사로 내한, 서울에서 백정드르을 대상으로 선교활동

1906년 1월 서울 정동교회에서 개최된 서울지역 장로교 감리교 연합집회 참석, 기록으로 남김

1906년 한국에서 소천

사무엘스 Jane Samuels (미국,북장로교)

1871~1945

1903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선천 선교부 부임

1901년 선천여자 성경반 강사로 여성교육 주도

1907년 선천지역 부흥회 목격 및 이를 기록으로 남김

1912년 선천 여자성경학교 설립, 평양 숭의여학교 성경교사로도 재직

1927년 사임 후 귀국

무어 John Z. Moore (미국, 미감리교)

1874. 1. 8. ~ 1963. 8. 6.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출생

1903년 미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정동교회에서 목사안수, 평양으로 부임

1905-14년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와 교육사업

1907년 평양 부흥운동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김[18]

---

17) Letter of Margaret Best to A. J. Brown, March 12, 1907.

18) J. Z. Moore, "The Great Revival Year", *The Korea Mission Field*, Vol.III, No.8, August 1907, 113-120.

1915년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 설립
1931년 평양 요한학교 설립
1940년 강제 귀국

마펫 Samuel A. Moffett (미국, 북장로교)[19]
1864. 1. 25. ~ 1939. 10. 24. 미국 인디애나주 매디슨 출생
1890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서울에서 6개월 어학공부
1893년 평양에 선교부 설치, 평양장로회신학교 설립
1904-24년 평양장로회신학교 교장으로 재직
1919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8대 총회장으로 선임
1918-28년 숭실학교 설립후 교장으로 시무
1934년 병으로 귀국

마커 Jessie B. Marker (여, 미국, 미감리회)
1875년 미국 신시내티 출생
1905년 미감리회 선교사로 내한, 교육, 복음선교에 주력
1907년 봄 부흥회에서 전도부인 백헬렌의 성령세례를 보고 기록으로 남김[20]
1910년 이화학당 대학과 설치당시 초대 교수 중 한사람
1912년 왕십리교회 부설 왕십리여학교 3대 교장
1913년 브라운리(C. Brownlee)와 이화학당 내 유치원 설치(한국 유치원의 효시)
1939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

---

19) S. A. Moffett, *Bible Society Record of ABS*, 1916.11. 216.
20) J. Marker, "Report of the Day Schools and Evangelistic Work of the Chemulpo and Hai Ju Circuits", *Report of Annual Session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7, 32.

케이블 Elmer M. Cable (미국, 미감리회)

1874~1949. 12. 2. 미국 아이오와주 출생

1899년 코넬대학교 졸업

1899년 미감리회 선교사로 내한

1899-1901년 배재학당 대학부 교수로 재직

1902년 평양 tsjrydus회에서 무어 감독에게 장로목사 안수

1904년 인천지방 연합사경회 주최, 회개운동 목격 후 기록으로 남김[21)]

1905년 〈대한그리스도인회보〉 주필로 활동

1910년 협성신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4년간 봉직

1915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

1926년 협성신학교 교장으로 부임

1931년 정년은퇴, 귀국

폴웰 E. Douglas Follwell (미국, 미감리회)

1895년 미감리회 선교사로 내한

1896년 평양에 부임하여 의료선교 시작

1897년 홀 부인의 도움으로 병원 완공, 기홀병원이라 함

1915년 환자수 증가하여 새로운 병원 건물 신축

1920년 선교사 자퇴서 제출후 면직 결정, 부산에서 개인사업

폴웰부인 Mrs. Follwell

1891년 내한

1907년 평양 남삼현교회 부흥회를 목격, 기록으로 남김

크램 Willard G. Cram (미국, 남감리회)

---

21) E. M. Cable, "Another Wonderful Revival", *The Korea Methodist*, Dec. 1904, 11.

1875. 12. 11. ~ 1969. 10. 29. 미국 켄터키주 도우튼 출생
1902년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1905년 선교연회와 1921년 한국연회 감독을 대리, 주재함
1905년 장감연합 선교사 사경회에 대해 보고
1907년 1월 평양 부흥운동을 목격, 기록으로 남김[22)]
1922년 귀국 후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 호소, 모금운동
1926-40년 남감리회 해외선교부 총무로 한국선교 후원
1930년 남북감리교회 합동때 선교본부 대표로 내한
1944년 은퇴

마이어스 Mamie D. Myers (미국 남감리회)
1875~1934
1906년 남감리회선교사로 내한, 원산에서 1년간 어학공부
1907년 원산 루씨여학교 4대 교장으로 취임
1907년 원산 부흥운동 목격 및 기록으로 남김
1920년 남북감리교 연합 전국여선교회 초대 총무로 선임
1921년 이완용의 주택이던 명월관 구입하여 기독교태화여자관 건립, 초대 관장 취임
1923년 춘천으로 전임
1932-34년 철원에서 목사로 시무

프라이 Lulu E. Frey (미국, 미감리회)
1868. 3. 9. ~ 1921. 3. 18. 미국 오하이오주 시드니 출생

22) Mrs. W. G. Cram, "Where are the Reapers?", *The Korea Methodist*, Dec. 1904, 14 ; W. G. Cram, "A Genuine Change", *The Korea Mission Field*, Vol.III, No.5, May 1907, 68.

1893년 미감리회 선교사로 내한, 이화학당 교사로 영어, 성서 강의
1904년 정동교회에서 열린 부흥회 기간 중 이화학당 학생들이 새벽기도회를 실시한 것을 보고 기록으로 남김[23)]
1907년 페인에 이어 4대 이화학당장으로 취임
1910년 이화학당 대학과 설치
1920년 안식년 휴가로 귀국

페인 Josphine O. Paine (미국, 미감리회)
1869. 2. 21. ~ 1909. 9. 25. 미국 보스턴 출생
1892년 미감리회 선교사로 내한
1893년 제3대 이화학당장에 추임, 15년간 봉직
1906년 정동교회 사경회 이후 변화된 이화학당 학생들에 대해 기록을 남김
1907년 당직을 프라이에게 넘기고, 제물포에서 지방순회전도, 평양, 서울의 기독교학교 관리
1909년 해주지방 순회중 콜레라로 소천, 양화진에 안장

화이팅 Harry C. Whiting (미국, 북장로교)
1865~1945. 8. 1. 미국에서 출생
신학, 의학 전공
1903년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내한
1903-06년 평양선교부 소속으로 평양장로교병원에서 활동
평양병원 재임시 실명위기의 길선주 목사의 눈 수술

23) L. E. Frey, "Ewa Haktang-Seoul", *Report of Annual Session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5, 5 ; "Revival at Ewa", *The Korea Mission Field*, May 1906, 133.

1906년 초대 재령선교사로 임명, 순회진료 등 의료사업 전개
1908년 재령병원 완공
1918년 부인 소천, 평양에 안장
1920년 선교사직 사임, 21년 귀국

샤프 Charles E. Sharp (미국, 북장로교)
1870~1952
1900년 부인과 함께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1907년 황해도 재령선교부로 이전
1907년 한국의 교회확장을 목격하고 기사로 남김
1912-13 황해노회장 역임
1921년 선교사직 사임하고 귀국

맥파랜드 Edwin F. Mcfarland (미국, 북장로교)
1904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대구에 부임
1905년 대구와 북쪽 지역에서 시무, 안동지방까지 선교구역 확장
1907년 순회설교를 통한 부흥운동을 목격하고 기사로 남김
1923년부터 아담스 선교기금의 후원으로 많은 교회 설립
1928년 건강문제로 선교사직 사임 후 귀국

클라크 Charles Allen Clark (미국, 북장로교)
1902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내한, 서울에서 선교준비, 곤당골교회(현 승동교회) 개척전도
1905년 승동교회 새 교회당 건축, 20년간 시무
1907년 서울에 온 길선주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기록으로 남김

1908년 평양장로회신학교 교수 취임
1941년 세계평화기도문사건으로 추방

데닝 Chales S. Dening (미국, 남감리교)
1876. 11. 17. ~ 1938. 3. 15. 미국 일리노이주 출생
1905년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인천에서 어학 공부
서울지방과 해주지방 감리사로 시무
1907년 서울지역 부흥운동 목격 후 기사로 남김
1911년 감리교협성신학교에서 15년간 조직신학 교수 역임, 피어선 연희전문학교 강사 역임
1929년 만주선교사로 자원
1937년 안식년으로 귀국

스웨어러 Wilbur C. Swearer (미국, 미감리회)
1894년 미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수원지방 전도사업
서울선교부 소속으로 배재학당 내 삼문출판사 사장 역임
1900년 충남 공주지방으로 전임
1904년 무스와 〈감리회보〉 편집위원으로 피택
1907년 전라도 전도에서 목격한 복음운동을 기사로 남김
1912년 건강을 잃어 귀국

해리슨 William B. Harrison (미국, 남장로교)
1894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서울에서 어학공부
1896년 전북 전주로 파송
1903년 부인 소천후 군산, 목포지방에서 선교사업 전개
1928년 과로로 귀국 후 소천

버딕 George M. Burdick (미국, 미감리회)

1903년 미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수원에서 선교활동
삼일여학교 설립

1907년 수원 부흥운동을 목격하고 기사 남김

1908년 수원지방회 초대 지방감리사

1933년 은퇴 후 귀국

리드 Wightman T. Reid (미국, 남감리교)

1907년 남감리교 의료선교사로 내한, 경기도 개성에서 의료선교사업 시작

1907년 부친의 모금으로 버지니아주 아이비로부터 의연금 5천달라 받아 개성에 아이비기념병원 설립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 주도

1910년 백만인 구령운동 관련 기사 남김[24)]

1950년 한국 전쟁 직전까지 한국에서 활동

관련 선교사들의 소속과 행적을 표로 정리

이름	교파	활동지역	부흥운동에서 역할
M. C. White	미남감리회	원산	1903년 한국에 초청되어 함남 원산에서 일주일간 감리교 선교사들을 위한 사경회에서 기도와 성경공부 인도
L. H. McCully	캐나다 장로회	원산	함남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매일기도회를 성경연구회로 발전시켜 원산 부흥운동 이끔
Joseph L. Gerdine	미남감리회	원산	1903년 원산선교사 부흥운동의 중심인물 1906년 목포에서 사경회 인도, 전라도 회개운동을 일으킴

24) W. T. Reid, "1,000,000 Souls for Christ This Year", *The Korea Mission Field*, Nov. 1910, 196-197.

A. Carroll	미남감리회	원산	1903년 원산 성경공부 모임에 소속되어 부흥운동 경험 후 기록으로 남김
M. Knowles	미남감리회	원산	1903년 원산 성경공부 모임 소속, 원산 부흥운동 목격 후 기록으로 남김
J. Hounshell	미남감리회	원산	1903년 원산 선교사 성경공부모임에 참여, 부흥운동 목격 후 기록으로 남김
R. A. Hardie	미남감리회	원산	1903년 8월 중국에서 온 화이트 선교사를 강사로 선교사의 기도와 성서사경회 개최, 원산 부흥운동 시작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강사로 연합사경회 개최
F. Franson	스칸디나비아 선교연맹	중국	1903년 경 원산을 방문하여 원산 감리교 선교사들과 사경회
A. F. Robb	캐나다 장로회	원산	1905년 원산 제직사경회에서 회개운동 이끔
Howard A. Johnston		뉴욕	1906년 서울과 평양에 와서 인도의 Kassia Hills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소식을 선교사들에게 전함
Mary R. Hillman	미감리회	인천	1904년 인천지역 여성선교 담당, 원산에서 옮겨온 인천지방 부흥회에서 전도부인들의 회심 목격 1904년 11월 10일부터 5주간에 걸쳐 전도부인들과 함께 황해도 지방으로 가서 부인 사경회를 개최. 이후 부평, 남양, 강화, 교동 등지를 돌며 계속 부인 사경회 개최
L. A. Miller	미감리회	인천	1904년 인천지역 여성선교 담당, 원산에서 옮겨온 인천지방 부흥회에서 전도부인들의 회심 목격 1904년 11월 10일부터 5주간에 걸쳐 전도부인들과 함께 황해도 지방으로 가서 부인 사경회를 개최. 이후 부평, 남양, 강화, 교동 등지를 돌며 계속 부인 사경회 개최
Mrs. Cable	미감리회	황해도	1904년 11월 10일부터 Hillman, Miller와 함께 5주간에 걸쳐 전도부인들과 함께 황해도 지방으로 가서 부인 사경회를 개최. 이후 부평, 남

			양, 강화, 교동 등지를 돌며 계속 부인 사경회 개최.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기여
William L. Swallen	북장로회	평양	1907년 1월 평양 부흥운동을 목격, 기록으로 남김, 후에 부흥운동을 전파하러 광주로 떠남
Graham Lee	북장로회	평양	1906년 성탄절 때 선교사들 특별기도주간 참석 1907년 1월 6일 장대현교회 중심으로 대사경회 개최 1907년 1월 14일 평양 부흥운동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부흥회를 인도함
Mrs. Bernheisel	북장로회	평양	1907년 1월, 평양 시내 여학교 회개운동에 참여
Charles Bernheisel	북장로회	평양	1907년 평양 부흥운동 목격
William B. Hunt	북장로회	평양	1907년 1월 평양 부흥운동을 목격 후 대구로 부흥운동을 전파하러 떠남
William N. Blair	북장로회	평양	1907-08 강계 대겨울성경학교로 부흥운동의 기조가 됨 1907년 1월 12일 토요일 부흥집회에서 설교 1907년 1월 16일 장대현교회 수요기도회 인도, 이후 평양 부흥이 전국으로 확산됨 1907년 1월 사경회에서 회개운동을 목격, 기록으로 남김
W. M. Baird	북장로회	평양	1907년 평양 부흥운동 목격
G. S. McCune	북장로회	선천	1907년 평양신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부흥운동, 성령체험을 목격하고 기록함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을 목격하고 이를 기사로 남김
Arthur L. Becker	미감리회	평양	1907년 숭실학교에서 일어난 부흥회 상황을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김
Velma L. Snook	북장로회	평양	1907년 스눅이 관리하는 여학교 학생들의 회개운동이 널리퍼짐
William A. Noble	미감리회	평양	1907년 평양 부흥운동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김
George H. Jones	미감리회	제물포	1907년 평양 부흥운동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김

Margaret Best	북장로회	평양	1907년 1월 평양 부흥운동을 목격하고 미북장로회 선교부 브라운 총무에게 이에 대해 보고함
Samuel F. Moore	북장로회	서울	1906년 1월 서울 정동교회에서 개최된 서울지역 장로교 감리교 연합집회 참석, 기록으로 남김
Jane Samuels	북장로회	선천	1907년 선천지역 부흥회 목격 및 이를 기록으로 남김
John Z. Moore	미감리회	평양	1907년 평양 부흥운동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김
Samuel A. Moffett	북장로회	평양	
Jessie B. Marker	미감리회	서울	1907년 봄 부흥회에서 전도부인 백헬렌의 성령세례를 보고 기록으로 남김
Elmer M. Cable	미감리회	인천	1904년 인천지방 연합사경회 주최, 회개운동 목격 후 기록으로 남김
Mrs. Follwell	미감리회	평양	1907년 평양 남삼현교회 부흥회를 목격, 기록으로 남김
Willard G. Cram	미남감리회	평양	1905년 장감연합 선교사 사경회에 대해 보고 1907년 1월 평양 부흥운동을 목격, 기록으로 남김
Mamie D. Myers	미남감리회	원산	1907년 원산 부흥운동 목격 및 기록으로 남김
Lulu E. Frey	미감리회	서울	1904년 정동교회에서 열린 부흥회 기간 중 이화학당 학생들이 새벽기도회를 실시한 것을 보고 기록으로 남김
Josphine O. Paine	미감리회	서울	1906년 정동교회 사경회 이후 변화된 이화학당 학생들에 대해 기록을 남김 1907년 당직을 프라이에게 넘기고, 제물포에서 지방순회전도, 평양, 서울의 기독교학교 관리
Harry C. Whiting	미북장로회	재령	재령지방 부흥운동 목격 및 기록으로 남김
Charles E. Sharp	미북장로회	재령	1907년 한국의 교회확장을 목격하고 기사로 남김
Edwin F. Mcfarland	미북장로회	대구	1907년 순회설교를 통한 부흥운동을 목격하고 기사로 남김

Charles Allen Clark	북장로회	서울	1907년 서울에 온 길선주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기록으로 남김
Chales S. Dening	미남감리회	서울	1907년 서울지역 부흥운동 목격 후 기사로 남김
Wilbur C. Swearer	미감리회	공주	1907년 전라도 전도에서 목격한 복음운동을 기사로 남김
George M. Burdick	미감리회	수원	1907년 수원 부흥운동을 목격하고 기사 남김
Wightman T. Reid	미남감리회	개성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 주도 1910년 백만인 구령운동 관련 기사 남김

초기 대부흥운동에서 선교사들의 관련 활동의 단계와 특징

이상 대체로 정리된 선교사 45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대개 세 단계의 과정, 곧 평양 대부흥운동의 단초가 된 원산선교사사경회, 그리고 이 운동의 확산과 평양 부흥운동의 촉발단계,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과 과정과 그 이후의 확산 단계 등에서 각각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 중 제1단계 원산선교사 사경회의 주축 선교사가 7명, 원산사경회 이후 확산되는 부흥운동에 역할 한 선교사가 6명,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관련된 선교사가 32명으로 분류 된다. 이미 주지하는 바 이 운동의 초기 발단 단계에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주축으로 운동이 촉발되었으나, 이후 대부흥운동으로 확대되면서는 장로교 선교사가 그 중심에 섰던 것 또한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는 이 운동이 지닌 '선교 에큐메니즘'적 특징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각 선교교파별 분류를 보면, 미북감리회가 14명, 미남감리회가 10명, 미북장로회가 17명, 캐나다장로회가 2명, 기타 2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여기서 기타는 주한 선교사로 볼 수 없으나, 세계적 부흥목사로서 이 시기 한국에서 집회를 인도, 선풍을 일으킨 스칸디나비아선교연맹 소속 목사

프란손, 미국의 부흥사 존스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선교사가 10명에 이르는 남감리회 선교사들은 원산사경회가 그들의 주체적 프로그램으로 시작 된 바 초기의 주도 역할, 그리고 훗날 대부흥운동 이후 야심차게 기획되었던 '100만 명 구령운동'에 열심을 내었 던 바 후반기에 그 역할이 편중되었다. 그러나 무어라고 해도 원산사경회에서부터 전국적 확산, 결국 1906년 평양선교사 사경회를 인도하여 이 운동을 견인한 미남감리회 소속 하디 선교사의 역할은 대부흥운동과 선교사 관련을 논하는 주제에서 제일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활동 지역을 보면, 역시 운동이 촉발된 원산, 그리고 운동의 절정을 이룬 평양, 서울 경기, 황해도 지역 등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운동이 전국적 규모를 지닌 대부흥운동이기는 해도 그 촉발, 확산은 역시 원산을 시발로 '추가령 지구대'를 타고 기호지역과 황해도로 연결되고 마침내 평양으로 북진, 극에 이른 운동 점화의 코스를 가늠할 수 있다.

결국 이 대부흥운동에서 서양 선교사들 역할의 중추는 그들 스스로의 영적 충전을 위한 소규모의 사경회를 개최한 것이, 각성과, 회개, 신앙적 감동의 국면으로 전개되었고, 또한 이러한 경험들을 각 선교교파의 동료 선교사들과 일부 한국인 지도자들과 나누고자 한 초기 단계에 크게 편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들 선교사 그룹이 대부흥운동의 기획자로 더구나 한국인들의 신앙적 양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정한 목표를 지니고 의도적 프로그램을 창출해 나간 면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이것이 한국인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신앙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대부흥운동의 모습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모습에 경이로운 관찰을 하며, 다시 역으로 그러한 현상으로부터의 감동을 체험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이들의 한 역할은 다시 이러한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의 현상을 세계교회에 묘사, 보고하며, 이 운동이 지닌 의의를 신학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에서 선교사들의 역할과 관련활동의 중추는 촉발자, 관찰자, 보고자, 신학적 평가자의 역할에 있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이르면,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의 전개, 확산, 주동, 그리고 스스로의 각성과 회개의 중심에는 한국인 크리스천이 위치하고 있음을 말 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Ⅲ. 결론 –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과 선교사 관계론

이 발제에서는 우선 이른바 '1907년 대부흥운동', 곧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살폈다. 이는 이 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핵심적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러나 전체 제목에서 지시하듯이 더욱 중요한 각론적 주제는 이 운동이 당시 한국 주재 서양선교사들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했는지, 곧 선교사들이 이 운동에서 행한 실질적 역할과 한계를 가늠해 보는 것이었다. 이에 어떤 형태로든 이 운동과 관련을 맺은 선교사들 45명의 생애, 활동, 특히 이 운동 경위 내에서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의식, 이 운동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결국 그들이 이 운동의 중추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는 한 결론을 찾았다. 그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역사적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 측면으로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을 말할 때, 이 운동의 이른바 '비정치화', '비민족화'를 특징적 현상으로 논하는 경우가 있다. 일정한 현상적 정리로는 가능한 논리이기도 했고, 그러한 측면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대부흥 이전 한국교회의 민족교회로서의 진로와 특성에 비추어 보면, 쉽게 비교될 수 있음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의 정치적 지향성이나 민족운동에 대한 비중에 대해 신학적 우려를

깊이 했던 다수 선교사들, 그리고 다른 정치적 목적을 지니긴 했어도 또한 이러한 한국교회의 진로에 대해 우려를 지녔던 일제 침략세력이 함께 대부흥운동의 진행과정을 고무적으로 해석하고 반겼던 경과 또한 발견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혹 이 대부흥운동이 주한 선교사들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프랜에 의해 시작되고 전개되었으며, 그 목표 또한 진작 설정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방향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일부 가능한 시좌였음을 밝힌다.

그러나 앞서의 방향은 일정한 결과에 대한 좁은 해석적 논리에 멈추는 견해임이 자명하다. 이 운동의 추이와 관련 선교사들의 구체적 활동, 역할 등을 살필 때 이는 그들의 의도나 계획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다음의 단계가 차례로 전개되었고, 여기에 대해 그들 자신고 경이와 감동의 경험으로 이를 목도해 나간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어떤 선교사들의 기획도 게재되어 있지 않음이 명료하다.

따라서 이 운동은 결코 선교사들의 주도와 중심적 역할로 진행된 신앙운동이 아님 또한 부언할 수 있다. 촉발의 단계, 확산의 일정한 역할에는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뚜렷할지 모르지만, 이 운동의 절정이 형성되며, 그 신앙운동 내용의 방향이 설정되고, 전국적 운동의 규모로 확산되어 한국교회 신앙양태의 변화가 초래되는 중심에는 한국인 크리스천 리더십과 대중 크리스천들의 자각이 위치에 있음을 재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대부흥운동의 현상들에 대해 선교적, 운동적 자신감을 지니게 된 선교사들이 확고한 기획과 프로그램으로서의 검토를 거쳐 실시하고자 한 이른바 '백만명구령운동'은 확실히 선교사 주도의 신앙운동이며, 선교 프로그램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 운동은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운동으로서 그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대부흥운동과 선교사와의 관련을 살피는 또 다른 한 기준이기도 하다.

〈논평문〉

서양 선교사들과 1907년 대부흥운동

서정민 교수의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독특한 역사적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은 '1907년의 대부흥운동'이며, 이 시기를 전후로 한 신앙사건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논문은 크게 〈1907년 대부흥운동의 전체적 개요 이해〉, 〈대부흥운동과 관련된 서양선교사들〉,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과 선교사 관계론〉 이상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논의방식은 논쟁적 재구성보다는 설명적 재구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1907년 대부흥운동의 전체적 개요 이해〉 부분에서, 서 교수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비롯된 부흥사경회의 경이적인 사건과 그것을 필두로 전국을 휩쓸고, 중국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친 한국교회의 신앙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운동은 이미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 하디에 의한 회개와 성령체험 사건이 계기가 되었고, 이후 평양으로 확산되어 길선주와 블레어, 리 등의 선교사들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케 한 철저한 회개운동이었다.

선교사들과 한국기독교인들의 회개를 통한 죄의 고백은 성령감동의 체험으로 연결되어, 용서와 화해, 고난을 견디는 내면의 힘으로 연결되어 나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부흥운동을 논의하는 데에는 여러 관점들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이 운동을 회심이나 결신의 확산

이나 교회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부흥 역사의 관점〉, 둘째, 〈문자적 의미의 부흥의 관점〉이 있는데, 서 교수는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볼 때, 이 둘의 관점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부흥운동은 기독교신앙 자체의 본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 〈본격적인 기독교 신앙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서 교수의 이 관점은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민족적 목표나 사회적 지표를 수행하는 공동체로서의 의의를 강하게 지녔던 상황에서, 개인의 체험과 경건, 죄의 고백과 중생의 경험이 표현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평양 대부흥사건은 한국교회의 진로에 큰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1) 한국교회의 리더십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 구국의 일념으로 기독교 사상을 채택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기독교계 민족운동가 그룹이 교회 지도력의 선두에서 이탈하였다. 그 대신 신앙적 지도자, 신학을 수학한 이들, 명실상부한 목회자들로 한국교회의 지도력이 교체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2) 한국의 주요 교파들이 자체의 교파 조직과 교회 치리의 조직 체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토착교회의 조직을 의미하고, 한국교회 스스로 목회자 양성과 목사 안수 등의 교회조직의 외형을 갖추는 단계가 되었다.

(3) 한국교회가 국내외 선교에 강한 의미를 표명하고, 행동에 돌입하고, 중국교회를 대표적 지역으로 하여 해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단계가 되었다.

(4) 한국교회가 정교(政敎) 관계에서도 자체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와 민족의 문제에서 분리되어, 개인과 내면으로 이행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교회사의 관점에서 대부흥운동 이후 한국교회의 진로를 보면, 피안과 개인적 내면신앙의 방향으로 몰역사적 진로를 선택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부흥운동과 관련된 서양선교사들〉에서, 서 교수는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과 주한 선교사 45명의 면면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원산선교사 사경회 주축 선교사 7명, 원산 사경회 이후 부흥운동에 역할한 선교사 6명,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관련 선교사 32명이 소개되고 있다. 이 운동의 초기 단계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었고, 대부흥운동으로 확산되면서부터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중심에 있었다. 선교 교파별로 보면, 미북감리회 14명, 미남감리회 10명, 미북장로회 17명, 캐나다장로회 2명 기타 2명으로 분포되었다.

이 대부흥운동에서 서양 선교사들의 역할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의 영적 충전을 위하여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고, 그것이 각성과 회개, 신앙적 감동의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서 교수는 이들 선교사 그룹이 대부흥운동의 기획자로 더구나 한국인들의 신앙적 양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정한 목표를 지니고 의도적인 프로그램을 창출해 나간 면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서 교수는 이 대부흥운동에서 선교사들이 한 역할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의 현상을 세계교회에 묘사, 보고하며, 이 운동이 지닌 의의를 신학적으로 얻고자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에서 선교사들의 역할은 촉발자, 관찰자, 보고자, 신학적 평가자의 역할만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의 전개, 확산, 주동, 그리고 스스로의 각성과 회개의 중심에는 한국인 크리스천이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운동과 선교사 관계론〉에서,

서 교수는 서양 선교사들이 대부흥운동의 중추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논의를 갈음하고 있다.

논평자는 100년전 평양 대부흥운동의 윤곽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준 서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러면서도 이 논문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 한 두 가지를 풀어내고자 한다.

첫째,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체와 관련하여, 서 교수의 논의 방식인 '한국크리스천' 對 '서양 선교사'라는 양틀은 교회사적 관점, 즉 대부흥운동의 외부적 관점에서 특히 '주도권'의 관점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이 운동이 영적 각성, 성령체험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이 운동의 진정한 주도권은 '한국크리스천'에게서도 '서양 선교사'에게서도 아닌 제 삼의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성령 그 자체'라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둘째, 대부흥운동 당시 주한 서양 선교사들의 파송 교단과 교파를 보면(미감리회, 미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나누어지는데, 파송 교파에 따라 선교지향점이 달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교파별로 강조한 선교지향점 같은 것은 없었는가?(예컨대, 사회개혁, 개인의 중생 등등) 이 점을 확인해 볼 수만 있다면, 당시 선교사들의 교파별 선교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대부흥운동 이후의 한국교회의 진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논의의 틀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00년전의 대부흥운동이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대부흥운동의 현재적 교훈이랄까, 지침이 있다면 무엇일까?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또한 남북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기독교 단체와 일부 대형교회의 반북 집회 현상들을 보면서…….

(**신응철**, 숭실대 전임연구교수)